

# 전력·용수 기반 삼성·SK 전남광주 반도체공장 눈앞

정치권, 특별시 반도체 유치 기정사실화  
민형배 “정부·기업, 조만간 반도체 발표”  
김지사 “반도체 공장 가시화 기승 띠다”  
임문영 “반도체산업 핵심거점 성장시켜야”  
이개호, 환영 성명 “첨단3지구가 최적지”

첨단기업 불모지인 전남광주가 풍부한 전력·용수를 기반으로 반도체 공장 유치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남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지역 정치권·전남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과 비수도권 투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전남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식 확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남광주 반도체 공장은 패키징 공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 패키징의 경우 다품종 맞춤형 생산의 특

성상 대규모 실무 엔지니어와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하다. 후공정 기업인 ‘엠펙테크놀로지코리아(엠펙코리아)’ 광주공장은 4천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같은 규모의 투자를 하더라도 직접 고용은 패키징이 2~3배 수준에 이르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전남광주는 전력·용수 부담이 적다는 게 최대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세공정 팹은 단지 하나에 원전 1기 규모의 전력과 대규모 공업용수가 필요하지만 패키징 라인인은 사용량이 훨씬 적다.

전국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갖춘 전남과 영산강 수계를 보유한 광주·장성권은 RE100 대응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반도체 공장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

여기에 해남 솔라시도에서 추진 중인 국가AI 컴퓨팅센터와 장성 데이터센터 사업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인프라가 집적될 경우 산업 연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광주 반도체 공장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민형배 당선자는 지난 8일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 전환기획위원회 출범식에서 “머지않아 반도체 산업 관련 정부와 기업의 발표 소식을 들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설립 부지 중 한 곳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전경.

/광주매일신문DB

김영록 전남지사도 전남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반도체공장 유치를 위해 산업 단지를 발굴하고 RE100을 착실하게 준비해온 전남광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광경을 곧 보게 될 것 같아 가슴이 뛰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국회의원(광주 광산)은 논평을 내 “정치권과 지역사회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며 “국회와 정부, 통합특별시, 대학, 산업계가 힘을 모아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미래산업 전환의 중심이자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반도체 팹 유치는 꿈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도 환영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공장 설립 추진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향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온

전히 반영된 특단의 조치”라며 전남광주 첨단3지구가 생산 공장의 최적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첨단3 지구는 안정적인 전력계통과 풍부한 수자원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지난해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으로 대규모 전력과 공업용수 공급 능력을 입증했다”며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인재 공급 능력도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자(왼쪽 두 번째)가 10일 광주 북구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열린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경범 위원장을 비롯한 준비위원들과 현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대중 인수위 'K-교육특별시 준비위' 출범

준비·실무위원 등 총 106명 위촉장 수여  
통합·AI·자율분권·메가시티 분과 활동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위한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10일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광주시 북구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자와 김경범 준비위원장, 준비위원, 실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당선자는 전남광주통합교육의 비전을 담은 현판식 이후 준비위원 12명, 실무위원 9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는 김경범 위원장을 중심으로 ▲통합교육기획 ▲AI교육대전환 ▲자율분권교육 ▲메가시티교육 등 4대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나눠 오는 7월 말까지 운영된다.

전남·광주지역 분야별 학부모, 대학생, 시민사회, 대학, 지자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며 현장과 교육가족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시민소통위원회는 다음 주 중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준비위는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광주·전남 두 지역의 균형 있는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이원화된 본부 체제로 운영된다. 광주본부는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 전남본부는 전남교육청체육교육센터(무안군)에 각각 둥지를 틀었다.

김대중 당선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에 대한 기대는 특별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관심과 시선으로 다가서고 있다”며 “특별시 교육을 AI 시대 대한민국 교육을 대표하는 대체 불가 K-교육으로 완성해내자”고 당부했다.

/백선욱기자

## 일반농산어촌개발 전남 4개 사업 선정

진도·완도·신안·장흥군 198억 확보

전남도는 10일 “해양수산부의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서 4개 사업이 선정돼 총 19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에 진도 용등, 완도 청산동, 신안 자은 한운, 3개소가,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장흥군이 각각 선정됐다.

진도 용등권역은 임회면 일원에 어촌 문화·교육의 핵심 거점이 될 ‘용등아라센터’를 조성하고 노후 마을·어민회관을 ‘선진 어촌 생활공간’으로 정비해 주민을 위한 정주 공간을 확충한다.

완도 청산동권역은 도서 지역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 문화·복지 공간인 ‘청산 어울마루’와 ‘청산 바다마루’를 거점으로 구축하고 권역 내 유휴 인프라를 정비한다.

신안 자은 한운권역은 체육공원 조성 및 경로당·목욕탕 등 노후 공동생활시설의 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배수로와 마을안길 등 생활안전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된 장흥군은 주민 주도 학습조직과 마을 동아리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촌 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www.hshi.co.kr

### 세계 최초 LNG 추진 대형 유조선

114K COT, SOVCOMFLOT

## 새로운 환경 기술로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를 개척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지구, LNG추진선박이 이끌어갑니다.

